

동방신기 日서 대규모 순회 팬 미팅

입력 2009. 10. 21. 08:56 · 수정 2009. 10. 21. 08:58



(도쿄=연합뉴스) 이태문 통신원 = 인기그룹 동방신기가 소속사와 일부 멤버 간 분쟁을 겪는 가운데 내년초 일본을 순회하며 대규모 팬 미팅을 연다.

동방신기는 1월 19-20일 고베월드기념홀을 시작으로 27일 센다이햇슈퍼아레나, 30-31일 요코하마아레나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일본 팬클럽인 비기스트(Bigeast)를 상대로 4번째 공식 팬 미팅을 연다.

소속사와 일부 멤버 사이의 분쟁으로 '해산설' 등 여러 추측이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다섯 명의 멤버는 이번 팬 미팅을 통해 팬들 앞에 다시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며 20일부터 시작된 입장권 추첨 예약에는 팬들의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.

한편, 동방신기는 다음달 21일 중국에서 '동방신기 세 번째 아시아 투어-미로틱 인 심천' 공연을 연다.

gounworld@yna.co.kr < [실시간 뉴스가 당신의 손안으로..연합뉴스폰](#) >< [포토 매거진](#) >< 저작권자(c)연합뉴스. 무단전재-재배포금지. >

연합뉴스. 무단전재 -재배포, AI 학습 및 활용 금지